

딸의 편지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해 여수에서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대학생활 마지막 한 해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딸아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보내 준 카드랑 캔디 그리고 책 너무 고마워요. 예쁘게 포장한 것 보고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엄마가 쓴 카드하고 아빠가 남긴 전화 메시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보고 싶네요. 그런데 아빠, 엄마! 요즘 나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더 힘이 들어요. 감사할 것은 너무 많은데, 어떨 때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별로 살기가 싫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떨어

져 살기는 절대로 싫어요. 이런 내 마음 이해가 되세요? 오클랜드에서 일 년 동안 빈민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믿음이 적었나? 무엇을 얼마나 다르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고 할까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소망 안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하지만 소망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우울해.

믿음이 어쩔 이렇게 없을까? 아빠, 엄마.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사랑 모두 다야! 그러면서도 왜 나는 재미있게 살아가지 못할까? 행복, 기쁨, 재미... 이런 것은 웬지 나에게서 낫설기만 해요. 왜 그렇지? 너무 이상해요.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빼고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

꼭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같이 생각하고 말하지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고 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얼굴이 엄마, 아빠 안에서 나한테 나타나! 이것 읽고 놀라지 마세요! 요즘 특별히 어려워서 그래요...”

또박또박 한글로 단정하게 써 내려간 딸아이의 편지였습니다. 딸의 편지를 받아 들고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었지요. 편지에서 전해져 오는 딸아이의 아픔이 그대로 제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활기차고 신나게 보내야 할 젊은이 나이에 딸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일까? 저는 딸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몇 번이나 편지를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1년을 도시빈민 선교에 헌신한 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던 딸이, 왜 갑자기 이런 깊은 영혼의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끝마치고 싶다’고 말하는 딸에 대한 걱정과 연민으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딸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은아야! 솔직히 엄마는 은아의 편지를 받고 조금 놀라고 당황했어. 엄마는 은아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싶어 몇 번이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엄마는 은아 나이 때 어땠나 엄마 자신을 돌이켜보았지. 은아야! 은아는 하나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도 은아와 다르지 않았음을 발견했거든. 그 시절 엄마도 은아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 엄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허상이 아닐까? 설사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도 저 멀리 우리 인간들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분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그치지 않는 의문과 회의, 의심에 싸여 있었다.

은아야, 나는 너의 방황과 갈등을 사랑한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아파하고, 낙심과 회의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인내하며 잘 지낸다면, 살아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은아를 붙잡고 일으키시리라고 믿기 때문이야.

믿음은 신뢰란다.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야.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들이 확실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오히려 보이는 실체 뒤에 숨어 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보고 듣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기만 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야.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보며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연상하듯이,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정확한 우주 질서와 삼라만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

묘막측한 인간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찌 그 지으신 이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은아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신뢰하고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니? 은아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그래 엄마는 은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아.

은아가 경험한 일 년은 은아가 살아온 이십 여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낯선 얼굴이었지? 평생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가난과 질병, 마약과 학대 받는 아이들... 은아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했었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가만히 계시서는 안되지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들을 떠나 오고 지금까지 은아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은, 은아가 아직도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엄마는 생각해.

사랑스러운 은아야! 하나님께서 은아를 그곳에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주님은 은아가 아파하는 그 이상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지? 은아의 아픔은 누가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지닌 은아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은 어떤 것일까?

은아야, 그래서 엄마는 은아의 갈등과 회의를 존중하고 싶구나. 엄마는 은아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거야. 엄마는 은아가 머무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은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은아 곁에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은아야!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딸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빠가 나온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을 마친 뒤,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일을 해왔지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딸의 갈등과 회의는 앞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토기 그릇처럼 아름답고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빚어져 갈 것임을 믿습니다. 딸의 참 보호자 되신 하나님! 육신의 부모보다 딸을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 홍성사 「희망 온 에어」의 일부를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실었습니다.